

## 제7차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회의록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여학생회장	체육부장	국어국문학과	독일언어문학과
한정빈	문태석	-	-	백주오	정유승
0	0	공석	공석	X	0

불어불문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김승호	김자은	정지수	윤상준	김한비	한승기
0	0	0	0	0	0

총원	10	결원	1	현원	9	서기	류하연
----	----	----	---	----	---	----	-----

참관인: 중어중문학과 신수호, 독일언어문학과 강인석, 불어불문학과 노형우, 철학과 임재혁, 사학과 박지완, 영어영문학과 문형주, 일어일문학과 유강민

### 1. 활동 보고

#### <인문대학 학생회>

03/30

- 에이스러닝 제휴

03/31

- 인문대학 집행부 정기 회의

04/01

- 인문대학 MT 신청 피드 게시
- 4월 월간달력 게시
- 만우절 기념 릴스 제작 및 인스타그램 업로드

04/02

- MT 및 5·18 사업 관련 행정실 면담

04/03

- 인문대학 MT 3차 회의

04/05

-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 <국어국문학과>

- 보고 없음

#### <독일언어문학과>

04/02

- 3월 독문과 건의사항 종합  
04/09
- 중간고사 간식행사 예약 주문

<불어불문학과>

- 03/31 ~ 04/01
- 불어불문학과 MT

<사학과>

- 03/28
- 사학과 학생회 회의
- 03/29
- 학생회실 소파 교체
  - 답사 세미나
- 04/01
- 사학과 학생회 회의
  - 4월 달력 업로드
- 04/02 ~ 04/03
- 사학과 춘계 정기 답사
- 04/07
- 사학과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 04/08
- 인문대학 풋살대회 예선 안내 및 홍보 카드뉴스 업로드

<영어영문학과>

- 03/31
- 과잠 구매 희망자 수요조사
  - 영문 마니또 안내 카드뉴스 업로드
- 04/08
- 학생회 소개 릴스 업로드

<일어일문학과>

- 보고 없음

<중어중문학과>

- 04/02
- 공청회
- 04/04
- 4월 달력 인스타그램 업로드

<철학과>

03/30

- 집행부 정기 회의

04/08

- 철학과 워크숍

<활동 보고 관련 논의 및 질의응답>

Q1. 인문대 회장: 독일언어문학과 간식사업 뎀 어떤 걸 준비할 예정인가?

A1. 독문과 회장: 싸이버거 세트 40개 준비 예정이다.

Q2. 인문대 회장: 다른 과들은 중간고사 응원 사업 준비되었나?

A2. 사학과 회장: 기말고사 때 진행 예정이다.

A2. 영문과 회장: 영문과도 기말고사 때 진행할 예정이다.

A2. 철학과 비대위원장: 철학과는 준비 중이다.

Q3. 인문대 회장: 어떤 걸 준비하나?

A3. 철학과 비대위원장: 그냥 다과 포장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Q4. 불문과 비대위원장: 인문대 학생회에서는 어떤 거 준비하나?

A4. 인문대 회장: 핫도그 생각 중이다.

Q5. 인문대 회장: 독일언어문학과에서 건의사항 나왔던 거 알려줄 수 있나?

A5. 독문과 회장: 구글 사용해서 익명으로 받았고 딱히 시설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

## 1-2. 개별 보고

1. 4/28 임시 전학대회 개최 예정 (4/9 임시 중운위에서 의결 예정)

가. 공지사항

1) 전학대회에 대한 정당성 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와 임시 전학대회 개최 예정

2) 4/9 임시 중운위 개최 후 임시 전학대회 개최 여부 논의 예정

3) 만약 개최 확정되면 대의원 명부 재작성이 필요함

가) 토요일 12시 전까지 인문대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명단 보내주기 바람

나) 대의원 참석을 권장하나 필참이라고 요구는 할 수는 없으니 참고 바람

## 2. 심의 및 의결 안건

- 안건 내용 없음

## 3. 논의 안건

1. 임시 전학대회 참가 여부

가. 공지사항

1) 중운위 의견에 따르면 개최 시에만 정족수 공지하고 의결이나 개표 시에는 총 정족

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임시 전학대회 개최 예정

- 가) 중간에 정족수가 부족해졌다면 바로 정회하고 폐회를 했어야 맞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음
- 2) 회칙에 따르면 개최 2주 전까지 공고를 필수로 해야 해 시험 기간 고려하여 4/28로 날짜 결정
- 3) 회장은 부회장에게 위임장 작성 후 위임 가능하나 대의원들은 위임 불가능
  - 가) 참석 불가능 시 불참으로 처리
- 4) 중운위에서 결정 나면 바로 공지할 예정

## 2. 운동장 공사 연기에 따른 체육대회 일정 변경

### 가. 기존 일정

- 1) 9/20 ~ 9/21 진행 예정

### 나. 체전 일정 변경

- 1) 예정되어 있던 운동장 공사가 5월 말로 미뤄짐
- 2) 체전 날짜를 5월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 필요

### 다. 인운위 의견

- 1) 철학과 비대위원장: 다른 단과대와 이야기는 언제 하나?
- 2) 인문대 회장: 아마 중운위 때 진행할 것 같다. 오늘 중운위에서는 체전 관련 논의를 하지 않기로 되어있어 일요일 중운위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 3) 철학과 비대위원장: 체전을 5/7에 진행하면 인문대 야구장 사업과 겹치지 않나?
- 4) 인문대 회장: 그것도 의논이 필요하긴 하다. 만약 체전을 5/6 ~ 5/7에 진행하게 되면 야구 관람 사업 날짜를 변경해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체전 일정을 빨리 끝내고 야구장으로 다 같이 이동하는 방안도 있다.
- 5) 철학과 비대위원장: 그럼 야구장 예약은 어떻게 되나?
- 6) 인문대 회장: 야구장 예매는 3주 전까지 메일을 보내고 경기 시작 10일 전까지 입금이라 아직 예매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 7) 독문과 회장: 저희 과는 5/13 ~ 5/14에 체전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20일부터 공사가 진행된다면 13일부터 체전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5/6 ~ 5/7에 진행하게 되면 예선전을 진행할 시간도 촉박하고 학생회 측에서도 MT 이후 바로 체전을 진행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체전은 9월보다 1학기에 진행하는 게 더 낫다.
- 8) 불문과 비대위원장: 불문과도 같은 의견이다.
- 9) 중문과 회장: 중문과도 같은 의견이다.
- 10) 사학과 체육부장: 사학과도 체전을 5월로 당기는 건 동의한다. 5/14 ~ 5/15에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
- 11) 인문대 회장: 금요일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행사 참여율이 매우 낮고 금요일 공장인 학우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금요일은 피하려고 한다.
- 12) 사학과 체육부장: 그렇다면 사학과도 5/13 ~ 5/14에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 13) 철학과 비대위원장: 철학과도 그날이 좋을 것 같다.

- 14) 영문과 회장: 영문과도 같은 의견이다.
- 15) 인문대 회장: 그러면 다들 5월로 체전 날짜를 옮기자는 의견인 것 같다. 하지만 예선전을 진행하기엔 다음 주는 시험 직전 주이고 4/20 ~ 4/24까지는 시험 기간이다. 남은 날짜로는 4/27 ~ 5/8인데 그때는 인문대학 MT가 있다. 그러면 2주 남짓한 시간 안에 예선 경기를 모두 진행할 수 있나?
- 16) 사학과 체육부장: 2주 안에 예선을 모두 끝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 17) 인문대 회장: 이번에 사회대에서 예선전 없이 체전을 진행했다고 해서 일정을 받아왔다. 설명하자면 사회대는 축구를 기준으로 8개 학과가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하였다. 8강에서는 전후반 합해 45분(전반 20분, 휴식 5분, 후반 20분)으로 진행하였다. 2일차에 진행한 4강부터는 50분(전반 20분, 휴식 10분, 후반 20분)으로 진행하였다. 한 번 떨어진 팀은 다시 경기를 할 수 없고 이긴 팀은 다음 날 축구를 두 경기 해야 한다. 사회대 체전은 종목에도 차이점이 있다. 사회대 체전에는 여자 PK 대신 여자 풋살이 있었고 소프트볼이 없다. 그래서 혹시 소프트볼의 수요가 많이 없다면 이번 체전에서는 소프트볼을 빼는 건 어떤가?
- 18) 사학과 체육부장: 사회대를 보면 예선전을 단판 토너먼트로 체전 당일엔 진행했는데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나? 2주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체전 직전 주나 2주 전에 8강전만 진행하고 1일차엔 4강, 2일차엔 결승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 19) 인문대 회장: 그렇게도 좋다. 그럼 혹시 2주 안에 예선 한 경기씩만 진행하는 건 괜찮나?
- 20) 사학과 회장: 여학생들을 모으는 게 어렵지 남학생들은 잘 모일 것 같다.
- 21) 인문대 회장: 만약 그렇게 하면 인문대 MT를 고려해 주셔야 한다. MT 일정이 4/29 ~ 4/30이라 수요일 예선 진행을 학생회가 도와줄 수 없다. 남은 기간 9일 안에 예선전을 전부 끝낼 수 있나?
- 22) 독문과 회장: 그래도 예선 없이 진행하면 당일에 남학생들이 힘들 것 같다. 보통 한 사람이 여러 종목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다. 미리 예선전 진행하고 체전 당일에는 본선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23) 사학과 회장: 체전 때 진행하는 종목이 어떤 게 있나?
- 24) 인문대 회장: 작년과 같을 것 같다.
- 25) 사학과 회장: 시간이 없다면 종목을 몇 개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 26) 인문대 회장: 무슨 종목을 빼면 좋겠나?
- 27) 사학과 회장: 족구와 여자 PK는 빼도 괜찮을 것 같다.
- 28) 사학과 체육부장: 혹시 다른 단과대와 원하는 날짜가 겹치면 대안이 있나?
- 29) 인문대 회장: 5/13 ~ 5/14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알려달라.
- 30) 사학과 회장: 그럼 5/20에 공사하는 것도 확정이 아닌 건가?
- 31) 인문대 회장: 그렇다. 중운위 또한 시설과 측에 공사를 미룰 거면 6월로 미뤄달라라고 주장 중이나 받아들여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 32) 독문과 회장: 제 생각이긴 하나 20일 이후로 공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

다. 지거국제전이 9월에 전남대에서 예정되어 있어 9월에는 운동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미뤄지다가는 겨울로 미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다른 단과대도 5/13 or 5/14에 체전 진행을 원한다면 5월에 미리 예선 경기를 해 놓고 9월에 본선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 33) 인문대 회장: 그렇게 진행하는 건 괜찮나?
- 34) 일문과 회장: 혹시 선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하나?
- 35) 인문대 회장: 사실 선수 변동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 36) 불문과 비대위원장: 어차피 토너먼트식으로 진행하면 예선을 한 경기만 진행하면 된다. 그럼 9월에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
- 37) 독문과 회장: 9월에 진행하게 되면 예선을 기존 방식대로 세 경기 모두 진행해야 한다.
- 38) 인문대 회장: 만약 공사가 5/20 or 5/27에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예선만 5월에 진행 후 본선을 9월에 진행하게 되어도 타 단과대 체전 일정을 고려해 예선을 진행할 수 있는 날짜도 총 4일 정도를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 39) 사학과 체육부장: 그럼 풋살대회도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한다. 만약 체전을 5월에 진행하게 되어도 풋살대회 취소해야 하고 예선만 5월에 진행하는 방안을 골라도 예선진과 풋살대회를 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풋살대회 진행 중인 걸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0) 인문대 회장: 체전 일정에 변동이 생긴다면 풋살대회는 현재 결과 그대로 유지하고 남은 경기만 2학기로 이월하는 방안으로 생각 중이다.
- 41) 사학과 회장: 혹시 타 단과대의 체전 희망하는 날짜를 알고 있나?
- 42) 인문대 회장: 아직 모른다.
- 43) 사학과 체육부장: 그러면 협의는 언제 하나?
- 44) 인문대 회장: 이번 주 일요일 중순위에서 진행 예정이다.
- 45) 독문과 회장: 5/12에 예비군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13일과 14일을 타 단과대들도 많이 희망할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차선택 정해 뒤야 할 것 같다.
- 46) 불문과 비대위원장: 단과대끼리 비슷한 날짜에 갈 것 같다.
- 47) 인문대 회장: 그렇다. 아마도 예비군을 경영대·인문대·사회대가 비슷한 날짜에 갈 것 같다. 경영대는 아직 체전 날짜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사회대는 체전을 이미 진행했다. 예선만 5월에 끝내두고 9월에 본선 진행은 어떤가?
- 48) 불문과 비대위원장: 그러면 5/20 전까지 축구 예선이랑 다른 예선 마무리 할 수 있나? 풋살대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 49) 인문대 회장: 아마 풋살대회는 멈춘 뒤 일정을 미뤄야 할 것 같다.
- 50) 사학과 회장: 9월에 체전을 진행한다고 해도 체전이 끝나면 또 중간고사인데 그럼 풋살대회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
- 51) 사학과 체육부장: 그러면 5/13 ~ 5/14로 1차 픽스하나?
- 52) 인문대 회장: 그것도 다시 회의해 봐야 한다. 예비군이 15일까지 많을 것 같은데

만약 14일이 인문대학 예비군이면 문제가 될 것 같다.

- 53) 인문대 부회장: 학생회가 5월에 행사가 많다. 풋살대회를 멈추고 2학기로 이월하게 되면 2학기에 예정되어 있는 행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풋살대회도 제대로 진행되기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풋살대회를 지금 멈추고 이월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차라리 예선과 풋살대회를 병행해야 할 것 같다.
- 54) 일문과 회장: 일정이나 진행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학생들의 체력이 일정을 따라오기 어려울 것 같다.
- 55) 중문과 회장: 체전을 원래 예정대로 예선부터 9월에 진행하는 건 어떤가?
- 56) 인문대 회장: 예선을 3경기에서 1경기로 줄이고 9월에 전부 진행하는 건 어떤가? 공사 연기 소식을 2주 정도만 빨리 전달받았어도 일정 조율 후 체전 진행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이미 진행된 게 너무 많아 일정 조율이 어렵다.
- 57) 불문과 비대위원장: 5/13 ~ 5/14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예정보다 더 미뤄지면 5/20 ~ 5/21에도 진행할 수 있나?
- 58) 인문대 회장: 그렇게 된다면 그 방법도 가능하긴 하다.
- 59) 독문과 회장: 5/6 ~ 5/7은 아예 불가능한가? 예선이 각 과 당 종목별(축구·소프트볼·발야구)로 한 경기씩 총 세 경기만 진행하면 되는데 하루 만에 축구와 발야구를 끝내고 각 과들끼리 모여 소프트볼 일정 조율해서 하면 빠듯하지만 가능할 것 같다.
- 60) 사학과 체육부장: 만약 6일부터 진행한다고 하면 연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직전 주에만 가능한 건데 그렇게 되면 연습이 안 되는 과가 생길 거고 기권패도 많을 것 같다.
- 61) 인문대 부회장: 개인적으로 농대 회장과 연락을 했는데 농대도 5/13 ~ 5/14 진행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추가로 자연대도 5/14 진행을 원한다.
- 62) 일문과 회장: 지금 당장 확실하게 날짜를 정할 수 없다면 대안 3개 정도 준비 후 일요일 중순위 때 결과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 63) 인문대 회장: 혹시 모르니 5/27 ~ 5/28도 이야기 해 보겠다.
- 64) 독문과 회장: 그러면 체전 날짜는 언제 결정하나?
- 65) 인문대 회장: 이번 주 일요일 오후 9시쯤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
- 66) 사학과 회장: 타 단과대와 희망 날짜가 겹치면 어떻게 정하나?
- 67) 인문대 회장: 겹치면 뽑거나 가위바위보 등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중순위에 가서 참석한 모든 학과가 5/13 ~ 5/14 진행에 동의한다고 할 예정이긴 하나 불가피하게 다른 날짜를 골라야 한다면 5/20 ~ 5/21을 2순위로 말 하겠다.
- 68) 사학과 체육부장: 27일도 공사가 미뤄진다면 괜찮을 것 같다. 5/6 ~ 5/7은 너무 빠른 느낌이라 9월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5/27 ~ 5/28이 나올 것 같다.
- 69) 인문대 회장: 혹시 공사가 5/20부터로 확정되어서 9월에 진행하기로 한다고 해도 예선은 토너먼트식으로 한 경기씩만 진행하나?
- 70) 독문과 회장: 9월에 하게 되면 작년과 같이 예선을 세 경기 진행하자.

- 71) 인문대 회장: 그럼 그건 언제 진행하나?
- 72) 독문과 회장: 9월 초쯤 생각한다.
- 73) 인문대 회장: 9/11일에 지거국제전이 있다. 이것 때문에 9/9 ~ 9/11까지 운동장 사용을 막는다고 한다. 그래서 농대 체전이 빠지게 되면 14일과 15일이 비고 자연대 빠지면 17일이 비게 된다.
- 74) 불문과 비대위원장: 예선을 18시 이후로 하면 상관없는 건가?
- 75) 인문대 회장: 그렇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날짜가 많지 않으니 예선 한 경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 경기를 진행하면 좋긴 하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예선을 세 경기 정도 끝내면 가능할 것 같다.
- 76) 불문과 비대위원장: 축구는 예선을 조별로 진행하고 소프트볼 등은 한 경기만 하는데 축구도 그냥 토너먼트식으로 한 경기씩만 진행하자.
- 77) 인문대 회장: 모든 예선을 5월에 시작해 체전 전까지 끝낼 수 있게 하고 9/20 ~ 9/21 동안 본선 경기만 끝내자는 의견은 괜찮은가? 이게 괜찮다면 축구 예선 경기 수를 투표하자.
- 78) 사학과 회장: 그러면 5월 체전 진행은 어려운 건가?
- 79) 인문대 회장: 5월은 배제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제약이 너무 많다.
- 80) 불문과 비대위원장: 5월에 예선을 하고 9월에 체전을 하기엔 멤버가 많이 바뀔 것 같고 중간에 텀이 너무 길다.
- 81) 일문과 회장: 멤버 교체는 불가피한 사항인 것 같다.
- 82) 사학과 회장: 날짜 먼저 투표 후 투표 결과에 맞게 논의하자.
- 83) 인문대 회장: 다른 것보다 날짜 먼저 투표하자. 투표는 회장님들만 거수 가능하다.
- 84) 인문대 회장: 투표 결과가 결원을 제외하고 9월이 좋다는 인원이 5명으로 더 많다.
- 85) 불문과 비대위원장: 그럼 아까 논의한 5/13 ~ 5/14 진행은 없는 이야기가 되나?
- 86) 인문대 회장: 그렇다. 9월에 하게 되면 예선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 87) 사학과 체육부장: 5/13 ~ 5/14를 안 하는 이유가 경쟁이 세서인가?
- 88) 인문대 회장: 경쟁이 세기도 하지만 참여·연습 시간 이런 게 크다.
- 89) 사학과 체육부장: 9월에 진행하면 9/20 ~ 9/21에 진행하는 걸로 확정인가?
- 90) 인문대 회장: 그렇다. 9/20 ~ 9/21은 이미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라 그 날짜에 인문대가 운동장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 9월에 하게 되면 예선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5월에 예선을 시작해 9월까지 끝내고 예정된 날짜에 본선 이틀 진행하는 건 괜찮나?
- 91) 사학과 체육부장: 그냥 예선도 9월 초부터 진행하자.
- 92) 불문과 비대위원장: 같은 의견이다. 9월에 시작해도 각 과가 종목당 한 경기씩 예선 경기 진행할 시간은 있을 것 같다.
- 93) 인문대 회장: 혹시 다른 의견 있나?
- 94) 일문과 체육부장: 공사가 9월에도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 95) 인문대 회장: 9월에 지거국제전이 확정되어 있어 9월에는 운동장 사용에 문제 없을 것 같다. 만약 공사 일정이 9월까지 마무리되기 어렵다면 공사 시작을 아예 뒤로 미룰 것 같다는 생각이다.
- 96) 영문과 부회장: 원래 운동장 공사가 2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밀려서 5월이 된 건데 이것도 미뤄진 거면 공사 진행이 이번에도 더 미뤄질 것 같다.



- 97) 불문과 비대위원장: 그러면 5/27 ~ 5/28나 5/20 ~ 5/21로 재투표하자.
- 98) 인문대 회장: 5/27 ~ 5/28로 결정이 되면 중운위에서 이 날짜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사유는 이미 2년 전부터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까지 딜레이가 되고 있기에 공사가 5/20 이후로 더 딜레이가 될 것 같다고 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5/20에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대안으로 9월에 체전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 또한 끝내고 가야 한다.
- 99) 사학과 회장: 공사 날짜 확정은 아직 모르나?
- 100) 인문대 회장: 그렇다.
- 101) 사학과 체육부장: 아까 투표했을 때 9월이 과반수였는데 5/13 ~ 5/14를 인문대에서 운동장을 확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도 9월에 진행하자는 건가?
- 102) 인문대 회장: 5/13 ~ 5/14에 진행할 거면 차라리 5/20 ~ 5/21 or 5/27 ~ 5/28이 나을 것 같다.
- 103) 독문과 회장: 예선은 똑같이 토너먼트식으로 진행하나?
- 104) 인문대 회장: 5월에 진행하면 시간상의 문제로 토너먼트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 105) 사학과 체육부장: 공사 시작 날짜 고려하지 않는다면 5/20 ~ 5/21이 가장 좋을 것 같다.
- 106) 인문대 회장: 5/20 ~ 5/21이면 인문대학 학생회에서도 5월 예정 사업 중 2개 정도 마무리 후 진행할 수 있어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가 가능하다.
- 107) 독문과 회장: 아까 9월 진행에 투표하신 분들은 5/20 ~ 5/21보다 9월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
- 108) 인문대학 부회장: 5/20 ~ 5/21이면 괜찮다.
- 109) 사학과 체육부장: 반대하시는 분 없으면 5/20 ~ 5/21을 1순위 대안으로 하고 만약 공사가 이 날짜에 시작된다고 하면 원래 예정대로 9월에 체전 진행하는 걸로 하자.
- 110) 독문과 회장: 그러면 중운위에서 5/20 ~ 5/21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면 공사가 미뤄졌을 때 인문대학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나?
- 111) 인문대 회장: 그렇게 이야기해 볼 예정이다.
- 112) 독문과 회장: 중운위에서 5/13 ~ 5/14는 이야기하지 않고 5/20 ~ 5/21만 이야기하나?
- 113) 불문과 비대위원장: 5/13 ~ 5/14는 첫 투표 시에 반대표가 더 많았다.
- 114) 독문과 회장: 5/13 ~ 5/14는 반대표가 많았으니 아예 5/20 ~ 5/21에 운동장 사용이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우선권을 달라고 이야기해 달라.
- 115) 인문대 회장: 그러면 중운위에서 5/20 ~ 5/21로 이야기 해 보겠다.
- 116) 독문과 회장: 만약 5/20부터 체전 진행 가능하면 풋살대회는 그대로 진행 가능한가?
- 117) 인문대 회장: 예선 경기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가능은 하다. 그리고 2순위 대안으로 5/27 ~ 5/28 이야기하면 되나?
- 118) 독문과 회장: 그렇다.
- 119) 인문대 회장: 체전을 만약 9월에 진행하게 되어도 큰 틀은 동일한가? 예선은 각

종목 당 한 경기씩만 진행하는 거고 9월에 하게 되었을 때만 예선을 9월에 진행하자. 만약 체전을 5월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풋살대회를 지금 이 상황에서 멈추고 경기 결과 그대로 2학기로 미루는 건 괜찮은가?

- 120) 사학과 체육부장: 괜찮다. 그러면 내일 사학과 풋살대회 경기는 어떻게 하나?
- 121) 인문대 회장: 일단 내일 경기는 해야 할 것 같다. 일요일에 체전 날짜를 확정 지을 수 있어서 내일 경기는 진행해야 한다.
- 122) 철학과 체육부장: 5/27 ~ 5/28에 체전 진행해도 풋살대회 미루나? 병행 가능한가?
- 123) 독문과 회장: 일정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 124) 인문대 회장: 5월에 체전 진행 시 풋살대회는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5월에 체전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큰 틀은 각 과에서 심판은 한 번씩 나와 주셔야 한다. 외부 심판의 경우는 수고비 등의 금액이 드는 부분이라 예선전까지는 도입이 어렵다. 가능한 빠르게 체전 진행에 대한 기획안 작성해서 공유하겠다. 시험 기간 제외 한 달 정도 남았기에 학생회에서도 빠르게 준비해 보겠다. 5월에 체전 진행이 확정된다면 당분간 인운위 회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한다.

라. 결론

- 1) 진행 일정
  - 가) 1순위:5/20(수) ~ 5/21(목)
  - 나) 2순위:5/27(수) ~ 5/28(목)
  - 다) 공사 진행이 5/20일 시 기존 일정대로 진행
- 2) 체전 진행 방식
  - 가) 예선을 토너먼트식으로 진행해서 각 종목당 한 경기씩 진행
  - 나) 학과마다 총 3경기 진행하기로 결정
- 3) 체전 5월 진행 확정 시 풋살대회 2학기로 이월
  - 가) 현재까지의 결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월

#### 4. 기타 안건

- 안건 내용 없음